

부모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

조 용 주[†]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자녀 양육의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는 부모의 공감에 관련된 국내 연구 논문 7편과 국외 연구 논문 29편을 개관하였다. 논문들은 연구 내용에 따라 1) 부모의 공감이 자녀에게 세대 전수 되는지 알아보는 연구, 2) 부모 공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부모의 공감 능력과 아동 학대와의 관련성 연구, 4) 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을 다룬 연구로 분류되었고, 각 주제별로 국외 연구 논문, 국내 연구 논문의 순으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한 문제점 즉, 같은 주제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척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국내의 부모 공감 연구의 부족, 부모 공감과 다른 양육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공감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 공감, 아동의 공감, 아동발달, 아동학대,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

[†] 교신저자 : 조용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Tel : 02-2164-4275, E-mail : yjj3141@hanmail.net

‘공감’이라는 용어를 심리학에서 처음 사용한 학자는 Lipps(1926)였다. 그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자가 미학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은 작품 자체에서가 아니라 작품과 연결된 감상자 내면의 느낌, 즉 정서의 동일시를 경험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감상자는 작품 내에 머물러 체험함으로써 감상자와 작품 간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공감을 인간관계에 확장시켜 상대의 표정이나 자세를 모방하여 같은 정서 상태에 이름으로써 상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신경일, 1994에서 재인용). Lipps처럼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강조한 학자(Stotland, Sherman & Shaver, 1971; Underwood & Moore, 1982)들이 있었고, 특히 Fabes, Eisenberg와 Miller(1990)는 공감을 ‘대리적 정서경험’으로 정의하고 부모-자녀 간의 공감 관련성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Mead(1934)와 Piaget(1932)은 공감의 인지적인 면을 강조하였는데 사회학자인 Mead는 타인의 역할 수용 또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였고, Piaget은 아동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아중심성(egocentrism)이 극복되고 탈중심화(decentering)가 이루어질 때 타인의 관점수용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두 학자의 영향을 받아, 공감은 타인의 지각을 정확히 예측하는 정도(Dymond, 1949)나, 타인의 감정, 생각, 상태를 정확히 아는 정도(Borke, 1971; Deutsch & Madle, 1975)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심리치료 분야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Rogers(1957)도 ‘공감은 타인의 준거들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처럼(as if)이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함으로써 공감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공감의 개념에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 이외 표현적 요소 또는 의사소통적 요소도 강조되었다.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Truax와 Carkhuff(1967)는 공감이란 ‘상대에 대하여 이해한 바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 했고 Rogers(1975)도 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해한 바를 의사소통하는 것이라 하였다. 상담분야에서 공감의 표현을 강조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하여 이해한 바를 전달하는 것이 상담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이 이타행동(Hogan, 1969)과 깊은 관련이 있고 공격성을 억제(Feshbach, 1964) 한다는 연구결과는 공감이 내적 과정을 거쳐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 학자들이 대체로 공감을 정서적 요소 또는 인지적 요소로 정의한 반면, 1970년대부터는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즉 Feshbach(1982)는 공감에 1) 타인의 정서 상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2) 역할수용 능력, 3) 정서반응성을 포함시켰고, Hoffman(1977)은 공감의 연속(순환)모델을 제시하면서 인지적, 정서적, 동기화 요소를 강조하였다. Davis(1980)는 공감의 구성개념에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공감의 다차원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공감이 실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연구된 분야는 상담 치료 영역이었다. 로저스가 치료 요인으로 치료자의 공감 능력을 크게 강조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공감과 치료 요인 간 관련성(Truax & Carkhuff, 1967; Luborsky, 1971)을 밝혔다. 이어서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밀접한 관계(Frodi & Lamb, 1980; Hogan, 1969; Hoffman, 1977)가 밝

해지면서 공감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Davis, 1983; Hoffman, 1982)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부모의 아동 양육에서도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Sullivan(1953)은 부모의 공감은 아동에 대한 다정함과 아동 욕구에 대한 예민함으로 표현된다고 했고, Winnicott(1965)은 어머니의 공감은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 의거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Kohut(1977)은 자녀의 자기애적 욕구에 부모 공감과 적절한 좌절이 주어질 때 자녀의 거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상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거쳐 응집적인 자기의 두 축인 건강한 야망과 이상으로 형성된다고 하여 부모 공감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실제로 공감적인 부모는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아동과 함께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심리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이끄는 반면(Feshbach, 1987), 부모의 공감부족, 특히 어머니의 공감부족은 아동에게 자기와 타인상의 과편화를 일으키며(Kohut, 1971), 공격성을 증대하기 어려워 아동학대(Feshbach, 1964; Feshbach & Feshbach, 1969)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양육과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제로 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의 경향성과 연구결과에 대한 개관 논문이 아직 없어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제까지 부모 공감을 주제로 진행된 국내외 연구들을 모아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부모 공감을 주제로 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첫

째, 부모 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제까지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의 경향성을 알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부모 양육의 이해를 돕고 둘째, 그동안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아내어 앞으로 부모 공감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과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학술 DB 중 NDSL, Science Direct, Springer에서 ‘부모 공감’(parents empathy)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하여 나온 논문들 중에서 부모 공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에게 공감척도를 사용하여 아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채택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1969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국외논문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논문 다수를 포함하여 29편, 국내 논문은 7편을 모았다. 논문의 연도가 다소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부모 공감을 주제로 한 리뷰논문이 없으므로 국외 29편, 국내 7편의 논문을 모두 개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총 36편의 논문에 사용된 질문지형식 또는 반구조화된 공감척도를 소개하고, 이어서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기로 하였다. 전체 36편의 논문을 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1)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 관련성만 검증한 연구, 2) 부모 공감이 아동 공감과 아동의 발달(공감 외)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 3) 부모 공감이 아동의 발달(공감 외)에 미치는 영향만 다룬 연구, 4) 부모 공감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 연구, 5) 공감증진 부모

교육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다룬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내용 요약의 편의상 2)의 주제가 1)과 3)에 각각 나누어지므로 2)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1)과 3)에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1), 3), 4), 5)의 주제에 따라 논문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 주제별 연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표를 제시하고 그 뒤에 각 논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표에는 연구자, 연구대상, 측정도구, 주제와 관련된 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개관논문에 사용된 척도 정리

본 연구에서 개관하는 논문들에 사용된 공감 척도는 전부 8개인데 7개는 여기에서 소개하고 Kilpatrick(2005)의 부모 공감척도(Parental Empathy Measure)는 주제 3)에 해당되므로 이 척도는 주제 3)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감척도는 Hogan Empathy Scale(HES;1969)로 여기에서 공감은 ‘도덕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타인의 안녕을 고려하는 것’이라 정의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척도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Marshall & Maric, 1996; Pecukonis, 1990; Wise & Cramer, 1988), 폭넓은 사회적 기술(Riggio, Tucker, & Coffaro, 1989), 사회적 예민성(Kurdek, 1981), 이타적인 경향성(Salais & Fischer, 1995)을 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60 ~ .71(Johnson, Check, & Smither, 1983)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선하(1986)가 부분적으로 번안하였고 Cronbach α = .51으로 보고하여 비교적 낮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한편 Mehrabian과 Epstein(1972)은 공감을 ‘타인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대리적 정서반응’이라 정의하고 공감의 정서적 요인을 재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Emotional Empathic Tendency Scale(EETS)은 33문항으로 정서감염에 대한 민감성, 낮은 타인에 대한 느낌 자각, 극단적인 정서 반응성, 타인의 긍정적 정서경험에 감동하는 경향성,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감동하는 경향성, 동정적인 경향성, 곤경에 처한 타인과 접촉하려는 의지 등을 측정하였다. 대학생 대상 내적 일치도는 .79, 반분신뢰도는 .84, 2주간격 재검사 신뢰도는 .85였으며, 영어권 국가의 상담자 대상 신뢰도는 .74였다(Trusty & Watt, 2005). 우리나라에서는 박성희(2004)가 번안하였고, 설현수, 김동민, 이수현(2006)의 타당화 작업에서 대학생, 상담자 대상 신뢰도는 .64로써 다소 낮게 나왔다.

Bryant(1982)는 앞서 소개한 Emotional Empathic Tendency Scale에서 17문항을 채택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2개 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Bryant(1982)의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는 EETS의 아동 및 청소년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2주 간격)는 $r = .74 \sim .85$ 로 비교적 높으며 Cronbach $\alpha = .54 \sim .79$ 였다.

Davis(1980)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는 1) 타인의 입장이나 관점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재는 ‘관점취하기’ 요인, 2) 영화, 소설, 연극 등의 가상 상황에서 감정이입 능력을 재는 ‘상상력’ 요인, 3) 타인에 대하여 따스함, 자비, 관심 등의 반응을 재는 ‘공감적 관심’ 요인(‘동정’이라 부르기도 함), 4)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두려움, 공포, 불편감 등의 반응을 재는 ‘개인적 고통’ 요인을 포함하며, 각 하위

요인에 7문항씩 전체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관점취하기와 상상력 요인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며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요인은 정서적 요소를 측정한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71 ~.77로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성희(1994)가 이 척도를 번역한 이래 초등학교용(박성희, 1997)과, 중학생용(김성은, 1997)이 제작되었다.

Feshbach와 Caskey(1985)의 Parent/Partner Empathy Measure(PPEM)는 가족 내 공감을 재는 척도이다. 1) 가족의 정서나 상태를 지각하는 정도를 재는 ‘인지적 공감’ 요인, 2) 가족이 안 좋은 상황일 때 비슷한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재는 ‘일반적 공감’ 요인(정서적 공감에 해당됨) 3) 배우자의 정서와 입장을 함께 하는 정도를 재는 ‘배우자 공감’ 요인, 4) 가족 간 정서적 소통이 안 되는 정도를 재는 ‘정서표현’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 공감, 일반적 공감, 배우자 공감은 서로 정적상관, 이 요인들과 정서표현 요인과는 부적 상관이며 Cronbach α =.86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척도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반구조화 척도로는 Feshbach와 Roe(1968)의 정서 상황척도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주로 아동에게 행복, 슬픔, 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슬라이드 4쌍을 보여주고 난 다음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 타인의 상황에 대하여 아동이 느끼는 정서를 채점하여 사용한다. Feshbach Audio-Visual Measure of Empathy (Feshbach, 1980)는 위의 정서 상황척도에 자공심 요인이 더 추가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신경일(1994)이 만든 척도는 IRI, EETS, Carkhuff(1969)의 공감적 이해척도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요소에 관점수용과 상상력 요인을, 정서적 요소에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정서적 공명 요인, 표현적 요소에 언어표현과 조력행동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Cronbach α =.62~.81로 보고되었다. 국내 공감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개관논문의 내용 정리

부모의 공감 능력은 자녀에게 전수되는가?

이 주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연구되었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결과들은 동일하지 않았다.

Barnett, King, Howard, Dino(1980)의 연구는 부모의 공감, 애정표현, 훈육, 타인의 감정 강조 등의 부모 요인과 유치원생의 공감 간 관계를 보았다. 아동의 공감은 Feshbach와 Roe의 The Feshbach and Roe measure(정서 상황척도; 1968)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공감은 EETS (Emotional Empathic Tendency Scale; Mehrabian & Epstein, 1972)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모의 공감은 부의 공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와 딸의 공감은 정적상관($r=.48, p<.01$), 부와 딸의 공감은 부적 상관($r= -.41, p<.05$)을 보였다. 아들의 경우, 부와 모의 모든 변수와 상관이 없었다. 여학생과 부모의 공감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어머니 고/저, 아버지 고/저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변량 분석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였으며($F=3, 24=3.30 p<.05$), 어머니 고/아버지 저 집단 여학생($M=12.29$)의 공감이 어머니 고/아버지 고($M=6.00$), 어머니 저/아버지 고($M=5.14$), 어머니 저/ 아버지 저 집단($M=6.29$)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다른 세 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와 모의 공감 비교에서 모의 공감이 부의 공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은 공감이 여성에

표 1. 부모 공감과 자녀 공감의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측정도구		결과
		부모	아동	
Barnett 등(1980)	유치원생	EETS	정서 상황척도	모와 딸의 공감만 정적상관
Feshbach(1987)	9-11세	PPEM	EETS,	모와 딸의 공감만 정적상관
Feshbach(1995)	4-5세		Audio-Visual 척도	
Trommsdorff(1991)	유치원생	EETS	교사가 아동의 공감 측정	모와 아동의 공감 정적상관
Fabes 등(1990)	8세 11세	IRI	실험실에서 관찰	모와 딸의 공감만 정적상관
Eisenberg 등(1991)	3학년, 6학년	IRI	EETS, IRI	부와 아들 공감만 정적상관
Eisenberg 등(1992)	5-6세 8-9세	IRI	실험실에서 관찰	모와 딸의 공감만 정적상관
Eisenberg 등(1993)	15세-16세	IRI	IRI	모와 자녀 간 공감 관련 없음
Kalliopuska(1984)	9-12세	EETS	EETS	부와 아들 공감만 정적상관
Strayer 등(1989)	6세	EETS	EETS	유의한 관련 없음
Strayer 등(2004)	4세-14세	EETS	실험실 관찰, 교사, 친구의 보고	유의한 관련 없음
Soenens 등(2007)	15-20세	IRI	IRI	IRI의 동정요인은 직접관련 관점취하기요인은 간접관련
Bernadett-Shapiro 등 (1996)	1학년 남학생	EETS	EETS	부와 아들의 공감 관련 없음

게 더 적절한 것이며, 그래서 여학생에게 더 많이 내재화되어 어머니와 딸 간의 공감만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Feshbach(1987)도 부모에게 자신이 개발한 PPEM(Parent/Partner Empathy Measure; Feshbach & Caskey, 1985)을, 아동에게는 Feshbach Audio-Visual Measure of Empathy(1980)와 Bryant(1982)의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로 공감을 재고 그 관련성을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도 모의 공감과 여학생의 공감만이 유의하였고, 모와 남학생, 부와 여학생, 부와 남학생의 공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Feshbach는 1995년에 대상을 4-5세로 바꾸어 어머니의 공

감과 아동의 공감 관련성을 보았는데 그 결과는 1987년의 연구결과와 동일했다.

독일에서 이루어진 Trommsdorff(1991)의 연구는 아동을 안 지 1년 이상 된 유치원 교사가 공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아동 공감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은 EETS를 사용하였고 어머니와 아동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가 취하는 행동과 그 이유를 물어 어머니의 아동 이해 점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도 어머니의 공감과 교사가 측정한 아동의 공감은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r=.61, p<.001$), 어머니의 양육 중, 이타행동에 관한 표현과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공

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각각 $r=.56$, $r=.54$).

Fabes, Eisenberg, Miller(1990)의 연구는 어머니에게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Davis, 1980)의 동정, 관점취하기, 개인적 고통 요인을 측정하고, 자녀에게는 실험실에서 다친 아동과 도움을 호소하는 어머니가 등장하는 비디오를 보여준 뒤,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언어와 표정으로 분리하여 채점하고 비디오에 나온 아동을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자녀의 나이를 통제한 후 partial 상관으로 어머니의 동정과 여학생의 동정은 $r=.26$, 어머니의 동정과 여학생의 부정적 정서는 $r=.38$ 의 상관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남학생의 동정과 어머니의 동정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Eisenberg, Fabes, Schaller, Carlo와 Miller(1991)의 후속연구에서는 부와 모에게 IRI의 동정, 관점취하기, 개인적 고통 요인을, 아동에게 EETS와 IRI 동정 요인 3문항을 측정하여 부모와 아동의 공감관련성을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모와 여학생의 공감은 관련이 없고 부와 남학생의 공감관련성이 있었다. 모와 여학생 간 공감관련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연구자는 이 샘플 어머니들의 너무 높은 공감 점수를 지적하고 있다. 즉 어머니들의 공감 점수가 너무 높고(5점 척도에 $M=4.19$) 평균차가 적어($SD=.53$) 어머니와 딸의 공감 관련성이 왜곡될 수 있으며, 한편 극단적으로 높은 공감을 보이는 어머니는 딸이 타인 지향적 정서반응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통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Eisenberg, Fabes, Carlo, Debra, Troyer, Speer, Karbon와 Switzer(199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동정/관점취하기는 여학생의 동정과 정적상관($r=.34$)을 보였고 실험실에서 필름을 같이 보

는 동안 측정된 남학생 동정과 어머니의 동정에서만 정적 상관($r=.19$)을 보였다. 그러나 이 결과도 zero-order의 회귀분석 결과이므로 해석상 유의해야 한다고 연구자는 밝히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과 여학생의 공감은 상관이 있으나, 어머니의 공감과 남학생의 공감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Eisenberg와 McNally(199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딸은 IRI의 동정요인에서는 관련성이 없었고, 어머니의 관점취하기와 딸의 동정사이에서만 유의한 관련이 발견($r=.51$, 남학생은 $r=.04$)됨으로써 15-16세의 청소년 자녀의 공감과 어머니의 공감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전의 연구(Fabes, Eisenberg & Miller, 1990; Fabes, Eisenberg 등, 1992; Barnett, King 등, 1980)와 다른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청소년시기에는 어머니보다 동료나 미디어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머니와 딸 간의 공감 상관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이 Eisenberg 등(1990, 1991, 1992, 1993)의 일련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딸 간 공감 관련이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어졌다.

한편,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Kalliopuska(1984)의 연구결과는 Eisenberg 등(1991)의 연구결과와 동일했다. 이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공감은 모두 EETS로 측정되었고, 모와 11세 남학생의 공감은 정적상관($r=.32$), 부의 공감과 12세 남학생 공감과는 부적상관($r=-.53$)을 보였다. 9~12세의 남학생 공감 전체점수와 여학생 공감 전체 점수 각각은 모의 공감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부와 남학생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모 $r=.06$, 부 $r=.10$).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핀란드의 특수성, 연구대상 차이, 공감 척도 점수의 차

이(부모는 8점 척도로, 자녀는 3점 척도)등을 생각해 보지만 어느 것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Strayer와 Roberts(1989)는 캐나다의 아동에게 EETS(Bryant, 1982)를 사용하고 부모에게는 EETS 33문항과 Bryant(1982)척도에서 정서적 표현성을 인용,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모의 공감과 부의 공감보다 유의하게 높게 보고되었지만, 모의 공감과 부의 공감 모두 자녀의 공감과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부모의 공감과 아동의 공감 사이에 부모양육이라는 중요한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설문지가 정서적 공감에 정서적 표현성을 더해 부모와 아동의 전체 공감점수 간 균형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위와 같이 부모 공감과 자녀 공감 간 직접 관련이 약하게 나타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나왔다. Strayer와 Roberts(2004)는 먼저 이 연구의 샘플로 부모 공감과 자녀 공감의 직접 상관($r=.06$)을 보고 난 다음, 이전의 선행연구들(Barnett 등, 1980; Kalliopuska, 1984; Bernadett-Shapiro 등, 1996; Strayer 등, 1989; Barnett, 1999; Trommsdorf, 1991)의 샘플과 이 연구의 샘플을 합하여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의 공감과 자녀의 공감 상관은 $r=.07$, 부의 공감과 자녀의 공감도 95%의 신뢰구간에서 $-.13\sim.12$ 의 상관이 나옴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 공감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을 입증하였다. 이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부모 공감과 자녀 공감 사이에 부모의 변인으로 아동에 대한 성숙요구, 부모의 통제, 부모의 아동 정서 표현 격려, 부모의 따스함, 신체적 체벌/거부 요인을 넣고, 아동의 변인으로 역할-수용, 분노, 정서적 표현성, 정서적 통

찰 등을 포함시켜 경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감적인 부모는(공감적인 아버지는 덜 권위적이고, 공감적인 어머니는 불안과 죄책감 유발의 통제방법을 덜 사용함)덜 통제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화와 약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공감적인 부모는 동시에 아동의 정서표현을 격려하거나, 아동이 화 낼 때 참기 때문에 아동의 화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공감적인 부모는 덜 통제적이어서 아동의 화와 부적상관이 있음과 동시에 정서표현을 격려하므로 아동의 화와 정적인 상관도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경로 때문에 부모 공감과 아동 공감의 직접상관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부모 공감과 자녀 공감의 직접, 간접 관련을 함께 본 연구로 Soenens, Duriez, Vansteenkiste, Goossens(2007)의 논문이 있다. 벨기에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공감이 1) 세대전수 되는지, 2)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공감 반응을 예언하며 부모-자녀 간 공감을 매개하는지, 3) 청소년의 공감이 청소년의 친구관계 질을 예언하는지 검증하였다. 어머니와 청소년에게 IRI의 동정과 관점취하기 요인을 측정하였는데 어머니의 동정과 청소년의 동정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r=.30$), 어머니의 관점취하기와 청소년의 관점취하기는 정적이긴 하지만 약한 상관을 보였다($r=.15$, $p<.10$). 두 번째 연구문제 검증에서 어머니의 지지는 어머니의 동정과 청소년의 동정 사이를 매개하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관점취하기와 청소년의 관점취하기는 매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동정요인(정서적 요소)은 어머니와 청소년 사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관점취하기 요인(인지적 요소)은 부모의 지지라는 요인에 의하여 매개됨으로써 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정은 선천적인 영향을,

관점취하기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Davis, Luce, Kraus(1994)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와 아들의 공감관련성이 낮은 이유를 Bernadett-Shapiro, Ehrensaft, Shapiro(1996)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아들의 경우,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와 애착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능력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을 받은 아들은 성동일시를 위하여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큰 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남성동일시를 탄탄하게 해 주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동일시를 거칠게 억압할 필요가 없어 자신과 타인 간 유연한 경계와 정서적 공감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의 공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공감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라는 가설 아래 부모의 공감(EETS), 아동의 공감(EETS 아동용), 양육 참여(Paternal Involvement in Childcare Index; Radin, 1985)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공감과 아들의 공감은 유의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소년의 공감 사이는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설은 지지되었다.

부모의 공감 능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공감은 이타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Wiche, 1997에서 재인용), 공감적인 아동일수록 이타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rayer & Roberts, 1989). 그럼 부모의 공감은 아동의 이타행동과 관련이 있는가? Zahn-Waxer, Radke-Yarrow, King(1979)의 연구는 9개월 간 관찰 조사 방법을 통하여 어머니의 공감적인 양육과 아동의 이타행동 관련성을

보았다. 조사자가 3주에 한 번씩 방문하여 1) 어머니의 위협 또는 어려움 관리능력 2) 아동의 상처와 욕구에 대한 즉각적 반응성 3) 상처와 욕구에 대한 양육적인 돌봄 등을 측정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점수로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행동할 때, 심한 기침을 할 때, 피곤해 할 때, 화난 것처럼 할 때, 울면서 슬퍼할 때 아동의 태도를 관찰하여 아동의 이타행동 반응점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가 갈등상황일 때 설명을 잘해 주고 공감적 입장을 취할수록 아동은 유의하게 이타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의 설명, 특히 정서가 포함된 설명이 아동의 이타행동과 관련이 깊었다. Strayer와 Roberts(1989)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공감은 학교에서 교사가 보고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예견($z=3.10, p<.002, two-tailed$)하고, 아버지의 공감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보고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예견($z=2.71, p<.007, two-tailed$)하였다. Fabes 등(199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공감적 관심과 여학생의 이타행동이 유의한 정적상관($r=.25$)을 보였고, 어머니의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 요인 모두 남학생의 이타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r=.25, r=.23$)이 있었다.

부모의 공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았던 Feshbach은 부모 공감을 재기 위하여 PPEM을 사용하고 아동의 변인을 다양하게 취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어머니의 공감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공격성, 품행장애)와 내현화 문제(고립, 우울)모두에 유의한 부적상관(각각 $r=-.42, r=-.37$)이 있었고, 아버지의 공감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r=-.41$)을 보였다(Feshbach, 1987). 특히 부모 공감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보면, 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보고 공격성,

표 2. 부모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측정도구		결과
		부모	아동	
Zahn-Waxer 등(1979)	1.5-2.5세	양육관찰	이타행동 관찰	모의 공감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이타행동간 정적상관
Strayer 등(1989)	6세	EETS	교사가 관찰한 이타행동	부모의 공감과 아동의 이타행동간 정적상관
Fabes 등(1990)	8세, 11세	IRI	실험실에서 관찰, 면접	모의 공감과 아동의 이타행동간 정적상관
Feshbach(1987)	9-11세	PPEM	Child Behavior Checklist	모의 공감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상관
Feshbach(1995)	4-5세	PPEM	실험실 관찰	모의 공감은 아동의 순종, 자기통제, 지적수준과 정적상관
Trumpeter 등 (2008)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IRI진환), 사랑불일치, 자기존중감, NPI, 우울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은 자녀의 자기 존중감과 적응적인 자기애와 정적상관
문승미(2006)	4세~5세	EETS	PKBS, 정서표출 측정	모의 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적, 정서조절은 정적상관
오진아(2007)		신경일	NRI	부모 공감과 친밀한 부모-자녀관계와 정적상관

교사-보고 공격성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성별로 봤을 때 모의 공감과 딸의 공격성 간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부의 공감은 아들과 딸 모두의 공격성과는 관련이 없었다(Feshbach, 1995). 실험실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와 PPEM의 상관에서 어머니의 일반적인 공감(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배우자 공감은 아동의 순종, 자기-통제, 긍정적인 감정 표현과 정적상관, 부정적인 감정표현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 공감과 아동의 지적 수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아동에게 Wide-Range Achievement Test(Jastak & Jastak, 1978)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인 공감과 여학생의 읽기와 철자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Feshbach, 1995).

한편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는 코헛(1977)의 이론처럼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자기-존중과 같은 건강한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되는 공감 실패는 낮은 자기-존중감, 우울,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IRI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지속적인 공감 실패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사랑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를 재는 사랑불일치 척도

(Schwarz & Zuroff, 1979)를 사용하였는데 두 척도 모두 자녀에게 측정하도록 하여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사랑불일치를 보았다. 부모의 적절한 공감 또는 외상적인 좌절과 자녀의 자기-존중감, 자기애, 우울과의 관련을 보기 위하여 자기-존중감척도(Rosenberg, 1989), 자기애척도(NPI; Raskin & Hall, 1981), 우울척도(Costello & Comrey, 1967)를 함께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존중감은 정적상관, 부모의 사랑불일치와 자기-존중감은 부적상관이 있었다. 부모 공감과 자기애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관점취하기 요인과 자기애의 지도력/권위, 우월성/거만, 우월성/거만(착취/특권의식을 통제한 후)간에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부모 공감과 부적응적인 자기애(세 가지 적응적인 자기애를 통제한 후)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 공감과 우울, 부모 사랑불일치와 자기-존중감, 부모의 사랑불일치와 적응적인 자기애는(지도력/권위 사이에서만)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모의 사랑 불일치와 부적응적인 자기애, 부모의 사랑불일치와 우울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가설대로 그림 1과 같은 연속선을 증명할 수 있었다.

국내연구에서는 오진아(2007)와 문승미(2006)의 연구가 있다. 문승미(2006)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보았다. 측정도구는 어머니에게

EETS를 박성희(2004)가 번안한 것을 수정, 사용하였고, 유아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PKBS; Merrell, 1994)을 천희영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조절을 보기 위하여 Zemanrhk와 Garber(1996)가 정서표출규칙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검사방법을 이해련(2004)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정서 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인 공격성, 과다행동, 주의문제, 반사회적 행동과 내재적 문제인 사회적 철회, 불안/신체적 및 자기중심적 행동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정서조절에서는 분노조절, 두려움 조절이 유의하게 높았다.

오진아(2007)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공감 능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를 보았다. 성인애착은 황경옥이 번안한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을 사용하고 공감척도는 EETS와 IRI 중 관점 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을 기초로 신경일(1994)이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Furman (1985)의 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를 한종혜(1996)가 번안한 것을 연구자가 부모용으로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은 부모-자녀 관계의 사회적 지지와 친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고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부모-자녀관계에서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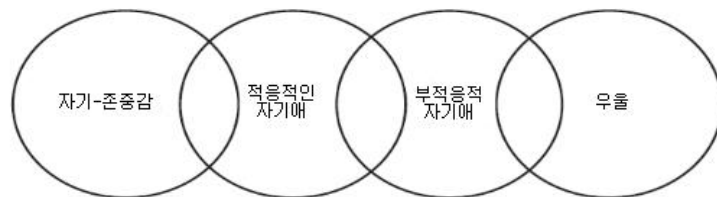


그림 1. 자존감에서 우울에 이르는 자기애의 자기표상 연속성

지지와 친밀요인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에서 성인애착과 공감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요인에서는 성인애착과 공감능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친밀요인에서는 공감 능력만이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어머니의 애착유형보다는 공감능력이 부모-자녀관계의 친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부모의 공감과 아동학대와의 관련

아동 학대의 원인은 개인, 사회 문화, 가족 등 여러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의 성격적인 면 특히 공감의 부족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Kempe와 Heifer(1980)는 부모의 공감능력은 아동의 상태와 욕구에 대하여 예민하게 자각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학대와 방치란 이러한 공감부족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 하였다.

표 3. 부모 공감과 아동학대의 관련을 본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측정도구	결 과
Melnick 등(1969)	학대모, 비학대모	TAT카드의 PI	두 집단 간 차이 있음
Letourneau(1981)	학대모, 비학대모	HES, EETS	두 집단 간 차이 있음
Feshbach(1987)	학대, 클리닉, 통제집단	PPEM	통제집단과 다른 두 집단 간 차이 있음
Rosenstein(1995)	학대부모, 비학대부모	AAPI의 공감요인	두 집단 간 차이 없음
Kugler 등(1988)	학대경험 부모	IRI	낮은 공감과 통제 부족감(무기력)과 상관있음
Milner 등(1995)	학대모, 비학대모	IRI	동정, 관점취하기요인 모두 차이 없음
Perez-Albeniz 등 (2003)	학대모, 비학대모	HES, EETS, IRI	HES, EETS는 유의한 차이 있음 IRI의 동정은 차이 있음, 관점취하기는 차이 없음
Perez-Albeniz 등 (2004)	학대부모, 비학대부모	PPEM, IRI	PPEM은 유의한 차이 있음 IRI의 동정은 상관없음, 관점취하기는 차이 있음
De Paul 등(2008)	학대모, 비학대모,	IRI	IRI의 동정은 상관없음, 관점취하기는 차이 있음
Wiehe(2003)	학대모, 비학대모	IRI	동정, 관점취하기 요인 모두 차이 있음
McElroya 등(2008)	학대고위험 부모	IRI	관점취하기 요인에서 상관있음
Kilpatrick(2005)	학대모	PEM, CAPI	PEM와 CAPI 간 부적 상관있음

오래 전 Melnick와 Hurley(1969)는 CPS(아동 보호 서비스)에 의하여 학대적인 어머니로 판명된 10명과 비학대적인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TAT카드를 어머니의 공감 부족 또는 신뢰 부족을 측정하는 PI(Pathogenic Index)점수를 낸 결과 학대적인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덜 공감적이었다($t=3.62$). Letourneau(1981)도 CPS에 의하여 학대적인 어머니로 판명된 30명과 day-care center에 의하여 학대적이지 않다고 판명된 3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공감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Feshbach(1964)의 공격성모델을 근거로 학대적인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공감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HES(Hogan Empathy Scale; Hogan, 1969)로 인지적 공감을, EETS로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였다. 예상대로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모두에서 학대적인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Schedule of Recent Life Experience(SRE)를 사용한 결과 스트레스는 학대적, 비학대적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트레스보다는 공감의 부족이며, 학대적인 어머니는 공감과 이타행동이 부족하여 아동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보다는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에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하였다.

Feshbach(1987)는 가족 간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PPEM을 사용하여 1) 학대집단 26명(지속적인 학대경력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 받고 병원에 의뢰됨), 2) 클리닉 위험집단 25명(학대경력은 없지만 클리닉에서 양육안대를 받고 있음), 3) 통제집단 66명(아동을 돌봐주는 기관이나 부모 프로그램에서 의뢰됨)의 공감을 비교하였다. 통제집단은 다른 두 집단

에 비하여 인지적 공감, 정서표현, 배우자 공감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클리닉 집단과 학대 위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학대적인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 공감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보고하지만, AAPI(Adult-adolescent parent inventory; Stephen Bavolek, 1975) 내 부모의 아동에 대한 공감요인으로 학대적인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 차이를 본 Rosenstein(1995)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9471$). 그리고 부모의 공감수준을 재는 척도로 IRI(Davis, 1980)를 사용한 다음의 연구에서도 하위요인에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Kugler와 Hansson(1988)은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울, 통제 부족감(무기력)과 부모의 상황적인 요인 및 관계능력 요인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부모의 상황적 요인 중 양육에 대한 평가 부족, 외로움이 우울이나 통제의 부족감(무기력)과 관련이 있었고, 관계 능력 변인에서는 IRI척도(Davis, 1980)의 공감적 관심(동정)과 관점취하기의 낮은 수준이 통제의 부족감(무기력)과 유의한 관련($r=.32$, $r=.33$)이 있었다. 그러나 Milner, Halsey와 Fultz(1995)의 연구결과는 이와 달랐다. 두 집단 간 개인적 고통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1, 18)=12.90$, $p<.005$), 관점취하기와 동정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이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정서적 변화 차이도 보았는데 자녀들이 웃다가 조용하거나 조용하다가 우는 감정변화에 대하여 학대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화가 유의하게 높았다. 고위험 어머니들이 감정의 전염성이 높은

것은 나와 환경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인지적인 과정과 성숙한 공감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지적 공감을 채는 HES와 정서적 공감을 채는 EETS를 사용한 연구(Letourneau, 1981)에서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IRI를 사용한 연구(Milner, Halsey & Fultz; 1995)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Perez-Albeniz와 Paul(2003)은 IRI, HES, EETS를 모두 사용하여 부모 공감과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HES($F(1, 70)=40.82, p<.001$)와 EETS($F(1, 71)=5.25, p<.05$)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IRI에서는 동정($F(1, 72)=7.95, p<.01$)과 개인적 고통($p<.001$)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왔으나 관점취하기($F(1, 72)=.29, p>.05$)와 상상력($F(1, 72)=.033, p>.05$)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이어 Perez-Albeniz와 Paul(2004)은 학대적인 어머니 뿐 아니라 학대적인 아버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모의 공감을 채는 척도로 PPES과 IRI를 함께 사용하였다. 집단 간 PPES에서는 전체 점수($F(1, 41)=21.70; p<.001$), 하위요인 중 자녀에 대한 공감($F(1, 41)=20.15; p<.001$), 파트너에 대한 공감($F(1, 41)=23.22;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IRI에서는 개인적 고통($F(1, 41)=39.05; p<.001$)과 관점취하기($F(1, 41)=11.51;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동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PPES와 IRI에서 부모의 성별에 의한 주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IRI의 개인적 고통과 관점취하기 요인에서 성별에 의한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개인적 고통에서 고 위협의 어머니들은 저 위협의 어머니($p<.001$)와

고 위협의 아버지($p<.01$)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관점취하기 요인에서는 고 위협의 아버지들이 저 위협의 아버지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점수($p<.01$)를 받았다. De Paul, Perez-Albeniz(2008)은 후속연구로 아동학대와 부모 공감 뿐 아니라, 아동 방치와 부모 공감 관계를 함께 보았다. 연구자는 아동을 방치하는 어머니들은 학대적인 어머니와 통제집단에 비하여 공감적 관심(동정)이 낮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대집단과 통제집단 간 공감에서는 개인적 고통($F(2, 92)=6.43; p=.002$), 관점취하기($F(2, 92)=3.25; p=.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동정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2003년의 연구와는 다르게 2004년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

Wiehe(2003)도 아동학대로 판명 받은 51명의 부모와 양육을 잘하는 부모 101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공감의 차이와 자기애의 차이를 보았다. 공감은 IRI으로, 자기애는 NPI(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81)와 HSNS(the Hypersensitivity Narcissism Scale; Hendin & Cheek, 199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대유무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회귀 분석한 결과, 양육적인 부모와 관점취하기요인, 동정요인은 정적상관(각각 $r=.26, r=.30$), 개인적 고통 요인은 부적상관($r=-.28$)이 나오므로써 위에서 언급한 Perez-Albeniz 등의 일련의 연구(2003, 2004, 2008)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학대적인 어머니들은 NPI의 하위요인 중 권위($r=-.21$), 우월성($r=.18$), 특권 의식($r=-.20$)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HSNS(자기-자신감, 충동조절)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r=-.46$)을 보였다.

한편,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부모의 인지적

인 면을 강조한 McElroy와 Rodriguez(2008)의 연구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위험이 높은 부모와 신체적 체벌 훈육을 하는 부모는 1) 아동에 대하여 좌절을 견디는 힘이 낮을 것이며, 2) 아동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예측 또는 기대를 하고 통제가 부모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여기며, 3) 아동의 입장에서 조망하는 것이 어렵다는 가설을 세웠다. 학대와 체벌을 예견하는 변수로 좌절을 견디는 능력(computer simulation으로 측정), 아동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POQ; Azar, Robinson, Hekimian, & Twentyman, 1984), 통제력의 소속(PLOC; Campis, Lyman, & Prentice-Dunn, 1986), 인지적 공감(IRI; Davis, 1980) 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 학대의 가능성과 위의 모든 인지적 변인들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체벌 훈육의 가능성과 인지적 변인들의 관계는 발달적 예측을 제외한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신체 학대위험이 높은 부모, 체벌의 훈육 위험이 높은 부모 모두에게서 IRI의 관점취하기 요인이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각각 $r=-.48$, $r=.47$).

Kilpatrick(2005)은 위와 같이 부모 공감과 아동학대 간 일치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용한 척도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을 제거하지 못했고 질문지형식의 척도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부모 공감척도(Parental Empathy Measure)의 구성개념으로 1) 아동의 신호에 집중하고 알아차리기, 2) 아동의 상태를 고려한 정확한 귀인, 3)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긍정적 정서, 4)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행동을 포함시켰다. 측정의 첫

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와 아동을 보호소에 보낸 경력을 조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과 양육에 대한 가치, 신념에 대한 질문이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10개의 시나리오를 제시, 질문을 통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행동과 정서, 보통 상황에서의 행동과 정서, 아동 행동에 대한 귀인을 파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어머니가 아동 신호를 어떻게 지각하며 아동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본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에는 사회적 선회도 검사가 들어가고, 전체검사를 통하여 양적, 질적 자료를 얻게 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Cronbach α) .73~.93이다. 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CAPI; Milner, 1986)의 아동을 거칠게 다룸 요인과 PEM의 4개 하위 요인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구조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PEM의 사회적 선회도 검사와 CAPI의 거짓말 척도는 강력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 도구는 좋은 사회적 선회도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 증진 부모교육의 효과 검증

양육에 있어서 부모 공감의 중요성에 비하면 부모의 공감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는 매우 적다. Guzzetta(1976)는 청소년 부모(6-8학년 학생 어머니 37명, 아버지 8명)를 대상으로 집단 1) 부모만 공감교육(13명), 집단 2) 부모 아동 분리하여 공감교육(12명), 집단 3) 부모 아동 함께 공감교육(11명), 집단 4) 통제 집단(10명)으로 나누어 3주 2시간씩 공감 학습훈련을 실시하였다. 부모 공감 질문지는 Goldstein(1973)의 것을 개정하여 훈련 전 A형(15개의 상황), 훈련 후 B형(A형에 새로운 상황 15개를 더함)을 각각 사

표 4. 공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연구자	프로그램명	연구대상	측정도구	결과
Guzzetta (1976)	부모공감증진	1) 부모 2) 부모 자녀분리 3) 부모 자녀 함께 4) 통제	부모 공감 질문지	집단 1) 2) 3)과 집단 4)는 차이 있음
Acton 등 (1990)	공격성조절	학대모	PSI 등	집단원 수가 적어 모수 통계 없음
Acton 등 (1992)	공격성조절	학대모	PSI 등	스트레스, 화 등의 유의한 감소
장미경(1998)	부모놀이치료	모 1) 실험 2) 통제집단	MEACI 등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있음
권영주(2005)	부모놀이치료	부 1) 실험 2) 통제집단	MEACI 등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있음
서지영(2006)	부모놀이치료	1) 부-모 2) 부 3) 통제집단	MEACI 등	1) 집단과 3)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있음
최영희(2006)	부모놀이치료	모 1) 실험 2) 통제집단	MEACI 등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있음
최영희(2007)	부모놀이치료	실험집단 사전 사후 추후	MEACI 등	추후=>수용적 의사소통 요인 낮아짐

용하였다. 교육내용은 A형 상황에 적합한 공감 반응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이것을 상대(집단 1, 2는 훈련자, 집단 3은 자녀)와 역할 연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 과정을 2번씩 실시하였다. 교육 실시 후, 집단 1, 2, 3은 집단 4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 실시 전(A형)과 후(B형)를 질문지와 비디오 평정으로 비교했을 때 A형 공감 학습뿐 아니라 B형의 새로 첨가된 상황의 공감 반응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 상황의 테스트에서 집단 1, 집단 2에 비하여 집단 3이 유의미하게 높은 공감능력을 보일 것을 예상과는 달리 집단 1, 2, 3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부모들에게 모델링, 역할놀이, 사회적 강화를 통한 공감능력 향상과 습득된 공감능력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며, 부모-자녀 간 공감의 행동화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cton과 During(1990)은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 대상으로 13주, 20시간의 공격성 조절 집단(Aggression Management Group; AMG)을 실시하였다. 학대적인 부모의 공격성 증가는 자기-통제력의 결핍,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아이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능력의 부족, 아동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귀인 등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자기 통제 기술 강화, 의사소통훈련, 문제해결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집단 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에서 타인-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하며 그 통찰을 타인 어른에게서 그들의 자녀에게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목표를 위하여 게슈탈트 치료의 빈 의사 기법으로 부모는 자신의 과거 공격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왜 그랬으며 그 때의 심정과

지금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보이는 공격성에 대한 감정과 영향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측정도구는 Parenting Stress Index(Abidin, 1986), State-Trait Anger Scale (Spielberger, Jacobs, Russel, & Crane, 1983), Index of Parenting Attitude(Hudson, 1982), 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Milner, 1986),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Robinson, Eyberg, & Ross, 1980)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이 없고 참여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N=15) 모수측정 통계를 내지 못했다. 이어 Acton & During (1992년)은 대상자(N=29)를 늘리고 회기별 목표를 구체화하여 13주 동안 13회, 1회 90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구성은 1회기: 시작회기, 2-4회기: 분노조절 훈련, 5-7회기: 의사소통 기술, 8-9회기: 문제-해결 기술, 10-12회기: 공감강화, 13회기: 종결회기(피드백 주고받기)로 구조화하여 사전, 사후 검사로 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는 위의 연구와 동일하며 사전, 사후에 실시한 척도들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ECBI의 '문제행동'요인만 제외하고 모든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큼을 입증하였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감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할 때 화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쉬웠으며,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하여 자녀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반응태도를 가질 수 있어서 희망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아의 부모에게 부모놀이 치료(Filial Therapy)를 실시하여 부모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아의 문제 행동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눈에 띈다. Guerney

(1964)에 의하여 개발된 부모놀이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치료적 대행자가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점과 놀이의 내용이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를 근거로 아동 중심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Guerney가 원래 8-10개월에 걸쳐 장기간 실시하던 교육을 Landreth(1991)가 정교하게 짜여진 10주의 교육으로 바꾸어 일반아동의 부모들에게 부모놀이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Bavin-Hoffman, Johnson, 1995).

우리나라에서는 장미경(1998)이 Landreth (1991)의 모델을 적용하여 정상아동의 부모-자녀관계 개선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을 보고한 이후 정상아동의 부모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들이 이어졌다. 장미경(1998)이 실시한 프로그램은 사전, 사후 각 1회기와 주 1회씩 8주간이며 교육 실시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며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강의와 실연, 역할극, 모델링 등의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집단에서 배운 기술로 가정에서 1주일에 30분씩 1회 아동과 놀이를 실시하고, 놀이장면은 비디오 촬영하여 다음시간 집단원과 함께 보면서 피드백, 격려, 지지를 받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부모의 공감 향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Measurement of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Stover, 1972)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1) 자녀에 대한 수용적 의사소통, 2) 자녀에 대한 자기안내 허용, 3) 자녀에 대한 개입정도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외에도 부모수용척도(Parental Acceptance Scale, Porter; 1954), 양육스트레스척도(Parental Stress Index, Abidin: 1983), 자녀의 문제행동목록(Filial Problem Checklist, Horner; 1974) 등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사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로 부모의 공감능력은 유의하게 증가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부모의 수용 증가와 양육 스트레스 감소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수용 증가와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연구자는 10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권영주(2005)와 서지영(2006)은 장미경(1998)이 실시한 프로그램을 모델로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각각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권영주(2005)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부모의 공감능력 향상, 아버지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아버지의 보고와 가정에서 자녀의 변화를 관찰한 어머니의 보고를 통한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아버지와 다른 자녀와의 관계 개선, 부부관계 증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지영(2006)은 부모놀이치료에 참여한 부모-모 참여집단, 부 참여집단 및 통제집단 간 공감능력 증진의 차와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모 집단과 부 참여집단의 결과는 통제 집단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공감 증진이 있었으며 부모-모 집단과 부 참여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모 참여집단과 부 통제집단 사이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놀이치료는 부모 모두에게 유효하며 가족 간 관계증진에도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최영희는 일주일에 2번씩 5주에 걸쳐 10회기의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효과(2006), 추후효과(2007)를 알아보았다. 사

후효과로 아동에 대한 공감적 상호작용의 각 하위요인 즉, 수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그리고 아동과 놀이에 몰입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자녀수용에서도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자녀의 독특한 기질을 이해하는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감정준중,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욕구 인식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역할이 제한을 받는다고 느끼는 역할제한 요인, 스트레스 요인에서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문제행동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효과 검증은 프로그램 종료 후 8주가 지난 시기에 이루어졌다. 사후 검사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자녀수용 중 자녀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는 요인의 유의한 상승, 양육 스트레스 중 아동영역의 양육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감소,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 정서불안정의 감소 등이며 부정적 변화로는 공감적 상호작용에서 수용적 의사소통의 지속효과가 오히려 낮아진 점이다.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부모의 공감능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들을 4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먼저 주제 1)과 관련하여 1980, 1990년대에는 부모공감이 자녀에게 전수되는지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많았다. 논문의 결과는 대체로 어머니와 딸 간에는 공감 관련이 있다는 결과(Barnett 등, 1980; Fabes 등, 1990; Eisenberg 등, 1992;

Feshbach, 1987)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Kalliopuska, 1984; Eisenberg 등, 1991; Strayer 등, 1989; 2004)로 나누어졌고, 특히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공감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복된 연구들의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여 2000년 이후의 이 주제에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부모-자녀 간 공감 전수의 직접 관련이 약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즉 Strayer 등(2004)은 공감적인 부모는 자녀를 덜 통제하기 때문에 자녀의 화를 감소시키지만 한편으로 자녀에게 정서표현을 독려하기 때문에 자녀의 화를 증가시키기도 하여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공감 간 관련성이 낮다고 하였고, Soenens 등(2007)은 공감의 정서적인 요소는 부모-자녀 간 직접 전수되며 인지적인 요소는 간접 전수된다고 설명하였다.

주제 2)의 연구들은 부모 공감이 자녀의 이타행동(Zahn-Waxer 등, 1979; Strayer 등, 1989; Fabes 등, 1990)에 미치는 영향을 시작으로 학습(Feshbach, 1995), 정서지능과 정서조절(문승미, 2006), 고립, 우울, 위축, 미성숙, 비행, 공격성, 품행장애(Feshbach, 1987; 문승미, 2006), 자녀의 건강한 자기애, 자기-존중감(Trumpeter 등, 2008)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건강한 자기상과 정서발달, 대인관계, 학습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공감과 딸의 공격성, 어머니의 인지적인 공감과 딸의 읽기와 철자가 더욱 유의한 상관(Feshbach, 1995)이 있다는 결과는 어머니 공감과 딸의 공감 간 관련이 높다는 주제 1)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3)의 부모 공감과 아동학대의 관련성 연구를 보면 초반의 연구는 다양한 공감 척도

를 사용하여 두 변인 간 부적 상관을 검증하였으나 최근에는 IRI척도를 주로 사용한 일련의 연구가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RI을 사용한 연구(Milner 등, 1995; Perez-Albeniz 등, 2003; 2004; 2008)에서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방치와 공감적 관심이 유의하지 않다는 예상 밖의 결과(Perez-Albeniz 등, 2008)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혼란스러운 결과들에 대하여 Kilpatrick(2005)은 척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학대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감 척도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좋은 신뢰도와 사회적 신뢰도 검사를 포함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모 공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점이 많지만 검사시간이 길고 일대 일의 인터뷰로 측정하기 때문에 척도 사용의 실용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주제 4)의 내용을 보면 Acton과 During의 1990년 연구는 집단원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1992년 연구에서 회기별 구조를 정교화하고 집단원 수를 늘려 공감 교육의 효과가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Acton 등의 연구는 두 번 다 통제 집단 없는 연구여서 연구의 효과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를 정상아동 모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장미경(1998)의 연구와 이 연구의 프로그램을 실험집단 대상만 달리하여 그 효과를 알아본 연구(권영주, 2005; 서지영, 2006)들이 있었다. 장미경의 연구는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상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의 확산에 기여한 점이 크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권영주(2005)와 서지영

(2006)의 연구는 장미경의 연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프로그램 실시 집단만 바꾸고 다른 새로운 면이 추가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최영희(2007)의 추후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은 추후에 유의하게 감소되지만 어머니의 수용적 의사소통의 지속성은 떨어져, 수용적 의사소통이 단기교육으로 그 효과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추후연구의 결과들은 더욱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같은 주제의 연구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므로 척도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된다. 주제 1)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와 딸 간, 아버지와 아들 간 각각 공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없다는 연구결과로 나누어진다. 특히 Eisenberg등(1990, 1991, 1992, 1993)의 일련의 연구 결과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주제 3)에서도 HES, EETS, PPEM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IRI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 특히 같은 주제의 연구에서 같은 연구자가 같은 척도를 사용한 Perez-Albeniz 등의 2003년, 2004년, 2008년 연구 결과는 매우 혼란스럽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부모 공감의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사회적 선회도 검사 장치(Kilpatrick, 2005; Perez-Albeniz & Paul, 2008)가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에 맞는 공감 척도가 필요(Feshbach; 1979, Perez-Albeniz & Paul; 2004, Kilpatrick; 2005)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일반관계에서 공감을 재는 척도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공감을 재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

상적인 대상에 대하여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과 자녀에 대하여 특히 갈등상황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는 다른 일반관계보다 더욱 밀착되고 갈등이 많은 관계이며, 책임이 큰 관계이고, 얼마나 표현하는가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감은 부모-자녀라는 관계의 특성에 맞는 공감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타당성 높은 척도의 사용은 모든 연구들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부모 공감을 잘 잴 수 있는 공감 척도를 알아내고, 필요하다면 부모 공감을 잴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미 개발된 질문지 형식의 유일한 부모 공감 척도는 PPEM인데 이 척도는 가족 간 공감을 재기 위한 척도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상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 척도가 부모-자녀 간 공감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을 고려한 한 부모 공감 요인의 연구와 그것에 맞는 공감 척도의 개발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부모 공감을 독립변수로 본 국내 연구가 매우 적다. 특히 부모 공감과 자녀 공감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부모 공감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본 국내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부모 공감과 자녀 공감의 직접관련, 간접관련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국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공감과 아버지의 공감이 딸과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고,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국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 공감이 자녀 발달에 기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원인을 환경적인 요소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내적인 변인에 맞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효율적인 양육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 공감과 다른 양육변인 간의 관계를 좀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오진아(2007)가 성인애착과 부모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작은 차이를 발견한 것처럼 긍정적인 양육변인들 간의 관계와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들을 알아간다면 효율적인 양육과 그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애착, 수용, 따스함,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요인들 간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각 변인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영역과 정도를 알아가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공감교육에 있어서 상담자, 내담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의 논문은 많은데 부모의 공감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의 연구들은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10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놀이치료에만 연구들이 치중해 있고 부모 공감보다는 부모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많다. 의사소통은 다소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좀 더 근본적인 공감적 태도와 자세를 부모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로저스(1975)도 공감은 의사소통의 기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공감은 타인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이전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경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의 변화 없이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그 효과와 효과 지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공감증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 공감에 관련된 연구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부모 공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제별로 연구 결과를 볼 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부모 공감을 주제로 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내용을 분류, 분석, 비교하는데 치중한 반면, 연구 설계를 분석, 비교, 평가하는데 소홀했다. 이후의 연구에서 연구방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연구결과의 옥석을 가리고 앞으로 연구 방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 공감이라는 변인에 한정하여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공감과 다른 양육 변인들 간 관계와 효율적인 양육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국내에서 부모의 공감을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앞으로 부모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영주 (2005). 아버지의 공감능력 증진 및 유아기 자녀의 행동문제개선을 위한 부모놀이 치료(Filial Therapy)의 효과. 남서울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미 (200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서지영 (2006). 아버지-어머니의 공감능력 증진 및 유아기 자녀의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의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현수, 김동민, 이수현 (2006). 정서적 공감척도의 타당화 및 차별기능문항 탐색. 교육평가연구, 19, 179-201.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9, 1-37.
- 장미경 (1998). 아동중심놀이치료 기법을 이용한 부모자녀관계증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진아 (2007). 어머니의 성인애착 및 공감능력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하 (1986). 간호계 학생과 비간호계 학생의 감정이입능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2006). 부모교육으로서의 부모놀이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7, 1-17.
- 최영희 (2007). 공감과 수용에 초점을 둔 부모놀이치료의 추후효과. 아동학회지, 28, 45-59.
- Action, R., & During, S. (1990). The treatment of aggressive parents; An outline of a group treatment program. *Canada's Mental Health*, 38, 2-6.
- Action, R., & During, S. (1992). Preliminary results of aggression management training for aggressive par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410-417.
- Bavin-Hoffman, R., Jennings, G., & Landreth, G. L. (1996). Filial therapy; Parental perceptions of the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5, 45-58.
- Barnett, M., King, L., Howard, J., & Dino, G. (1980). Empathy in Young Children: Relation to parents' Empathy, Affection and Emphasis on the Feelings of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43-244.
- Bernadette-Shapiro, S., Ehrensaft, D., & Shapiro, J. (1996). Father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son: An empirical study. *Family Therapy*, 23, 78-93.
- Borke, A.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mpathy Historic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2-269.
-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Empathic concern and the muscular dystrophy telethon: Empathy as multidimensional constru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223-229.

- Davis, M. H., Luce, C., & Kraus, S. J. (1994). The heritability of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disposi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62*, 369-391.
- De Paul, J., Perez-Albeniz, A., Guibert, M., Asla, N., & Ormaechea, A. (2008). Dispositional Empathy in Neglectful Mothers and Mothers at High Risk for Child Phys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 670-684.
- Deutsch, F., & Madle, R. A. (1975). Empathy: Historic and current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a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18*, 267-287.
- Dymond, R. F. (1949). A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empathy ab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3*, 127-133.
- Eisenberg, N., Miller, P. A., Schaller, M., Fabes, R. A., Fultz, J., Shell, R., & Shea, C. (1989). The role of sympathy and altruistic personality traits in helping: A re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7*, 41-67.
- Eisenberg, N., Fabes, A., Schaller, M., Carlo, G., Miller, P. A. (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 Eisenberg, N., Fabes, A., Carlo, G., Troyer, D., Speer, A.,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isenberg, N., McNally, S. (1993). Socialization and Mothers' and Adolescents'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171-191.
- Fabes, R., Eisenberg, N., & Miller, P. A. (1990). Maternal Correlates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39-648.
- Feshbach, S. (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71*, 257 - 272.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and seven year-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Feshbach, N. D., & Feshbach, S. (1969).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in two age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1*, 102-107.
- Feshbach, N. D. (1980). *The Psychology of empathy and the empathy of psychology*. Presidential address, 60th Annual Meeting of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Honolulu, HI.
- Feshbach, N. D.,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regulation of aggression.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 399-413.
- Feshbach, N. D., & Caskey, N. (1985). *A new scale for measuring parent empathy and partner empathy: Factorial structure, correlates and clinical discrimin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271-29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hbach, N. D. (1995). Parent Empathy; A key Element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dvances in Early Education and Day Care, 7*, 3-26.

- Frodi, A., & Lamb, M. (1980). Child abusers' responses to infant smiles. *Child Development, 51*, 238-241.
- Guernsey, B. Jr. (1964). Filial therapy: Description and Ration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 304-310.
- Guzzetta, R. A. (1976). Acquisition and Transfer of empathy by the Parents of Early Adolescents through Structures Learning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449-453.
- Hoffman, M. L. (1977).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s. In C. B. Keasey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25) (pp.169-217).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ffman, M. L. (1982). The measurement of empathy. In C. E. Izard (Ed.), *Measuring emotion in infants and children* (pp.279-29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J. A., Cheek, J. M., & Smither, R. (1983). The structure of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299-1312.
- Johnson, L. (1995). Filial therapy: A bridge between individual child therapy and family therapy. Relation between Children's and Parents' Empathy. *Psychological Reports, 54*, 295-299.
- Kalliopuska, M. (1984). Relation Between Children's and Parents' Empathy. *Psychological Reports, 54*, 295-299.
- Kempe, C. H., & Heifer, R. E. (1980). *The battered child (3r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lpatrick, K. L. (2005). The Parental Empathy Measure: A New Approach to Assessing Child Maltreatment Risk.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 608-620.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ugler, K. E., & Hansson, R. O. (1988). Relational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Among Parents at Risk of Child Abuse. *Family Relation, 37*, 328-332.
- Kurdek, L.A. (1981). Young adults' moral reasoning about prohibitive and prosocial dilemma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263-272.
- Landreth, G. L.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Muncie, IN: Accelerated Development Press.
- Letourneau, C. (1981). Empathy and stress: How they affect parental aggression. *Social Work, 26*, 383-389.
- Lipps, T. (1926). Psychological studies Baltimore; Williams & Wilkins. In *Empathy Development, Training, and Consequences*, Goldstein, A. P & Michaels (1985). Hillsdale, New Jersey.
- Luborsky, L. B., Chandler, M., Auerbach, A.H., Cohen, J., & Bachrach, H. M. (1971). Factors influencing the outcome of psychotherapy: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75*, 145-185.
- Marshall, W. L., & Maric, A. (1996).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generalized empathy deficits in child molester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5*, 101-110.
- McElroy, E. M., & Rodriguez, C. M. (2008). Mother of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

- problems: Cognitive risk factors for abuse potential and discipline style and practices, *Child Abuse & Neglect*, 32, 774-784.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elnick, B., & Hurley, J. R. (1969). Distinctive Personality Attributes of Child-Abusing M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746-749.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Milner, J. S., Halsey, L. B., & Fultz, J. (1995). Empathic Responsiveness and Affective Reactivity to infant Stimuli in High- and Low-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Mothers, *Child Abuse & Neglect*, 19, 767-780.
- Pecukonis, E. V. (1990). A cognitive/affective empathy training program as a function of ego development in aggressive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5, 59-76.
- Perez-Albeniz, A., De Paul, J. (2003). Despostional empathy in high and low-risk parents for chil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7, 769-780.
- Perez-Albeniz, A., De Paul, J. (2004).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in parents at high and low-risk of chil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8, 289-300.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Trench, Trubner.
- Riggio, R. E., Tucker, J., & Coffaro, D. (1989). Social skills and em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93-99.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95-103.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Rosenstein, P. (1995). Parental Levels of Empathy as Related to Risk Assessment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19, 1349-1360.
- Soenens, B., Duriez, B., Vansteenkiste, M., & Goossens, L.(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Adolescence: The Role of Maternal Support. *Society and Social Psychology*, 33, 299-311.
- Stotland, E., Sherman, S.E., & Shaver, K. G. (1971). *Empathy and birth order*.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trayer, M., & Roberts, W. (1989). Children's Empathy and role Taking: Child and parental Factors, and Relations to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27-239.
- Strayer, M., & Roberts, W. (2004). Children's Ang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pathy: Relations with parents'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13, 230-254.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rommsdoref, G. (1991). Child-Rearing and Children's Empath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 72, 387-390.
- Trumpeter, N., Watson, P. J., O'leary, B. J.,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 51-71.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Trusty, J., Ng, M., & Watt, R. E. (2005). Model of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emotional empathy of counseling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 66-77.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Wiehe, V. R. (1997). Approaching child abuse Trea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Empathy, *Child Abuse & Neglect*, 21, 1191-1204.
- Wiehe, V. R. (2003). Empathy and narcissism in a sample of child abuse perpetrators and a comparison sample of foster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7, 541-555.
- Winnicott, D. W. (1965). *The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 Wise, P. S., & Cramer, S. H. (1988). Correlates of empathy and cognitive style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ical Reports*, 63, 179-192.
- Zahn-Waxer, C., Radke-Yarrow, M., King, R. A.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원 고 접 수 일 : 2009. 3.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9. 8.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21

Trends in Research on the Impacts of Parental Empathy on Children

Yong-Joo Jo

Nam-Woon Chung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reviews seven Korea's articles and twenty nine overseas' on parental empathy, an essential element in parenting. The articles are classified by subjects: 1) possibility of transmission of parents' empathy to their children 2) impact of parental empathy on child development 3)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pathy and child abuse 4) development of programs for enhancing parents' empathy and verification of effects of such programs. Each subject are summarized and arranged in overseas' followed by Korea's. On the basis of findings of these articles, this study discusses problems of measurement, lack of research in Korea, need for research on relation between parental empathy and other elements in parenting and need for development of programs for enhancing parents' empathy and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Key words : parental empathy, child's empathy, child development, child abuse, filial therapy